

국내 뉴스

10월 27일 한국영화 100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한국영화10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영화 100년 국제학술세미나'와 '한국영화 100년 광화문 축제'를 개최했다. 10월 27일은 1919년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탄생한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역 LW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글로벌 한국 영화 100년-사유하는 필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계화된 미디어 환경 속 한국영화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봤다.

광화문 축제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의리적 구토'를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와 영화 촬영현장 재현, 시민을 위한 영화 OST 음악회,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영화배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타부스와 한국영화 100년을 상징하는 100가지 기념물을 파일로 담아 타임캡슐로 봉인하는 이벤트도 열렸다.

기념사업추진위는 한국영화 감독 '100명'이 만든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100초짜리 단편영화 '100편'을 선보였다. 이정향 감독부터 방은진, 김보라 등 여성 감독 50명과 강형철, 이준익, 강제규, 윤재균 등 남성 감독 50명이 참여했다. 단편영화는 매일 한국영화 100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상영됐다. 이 밖에도 SNS를 통해 한국영화 팬들에게 '잊지 못할 한국영화 최고의 명장면에 대해 물었다. 관객들은 '클래식에서 우산 대신 걸옷을 펼치고 캠퍼스를 달리는 장면, '살인의 추억'에서 박두만 형사(송강호)가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묻는 장면 등을 명장면으로 꼽았다.



'겨울왕국2' 11월 개봉, 흥행 이어갈까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겨울왕국'의 후속작 '겨울왕국2'가 11월 개봉한다. 대부분의 후속작은 전작보다 흥행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 징크스를 깨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겨울왕국2는 주인공 엘사와 안나 자매가 아렌델 왕국의 숨겨진 진실과 엘사가 지닌 마법의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특히 전편보다 한층 성장한 캐릭터와 확장된 스토리로 주목받고 있다. 히로인 크리스토프와 귀여운 눈사람 올라프 역시 여정에 동참한다. 새로운 캐릭터도 만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겨울왕국2는 전편에서 호흡을 맞췄던 크리스 벅, 제니퍼 리 감독을 비롯한 음악 감독, 프로듀서가 모두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예고편을 공개한 뒤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1640만 회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애니메이션 영화 예고편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 겨울왕국2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해외 뉴스

애플과 디즈니 OTT 서비스 11월 출시... 넷플릭스 잡아라

애플과 디즈니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세계 시장 1위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축적된 콘텐츠가 많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애플의 '소니픽처스 인수설'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애플은 월 4.99달러(약 6000원)에 가족 6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OTT서비스 '애플TV+'를 곧 출시한다.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구입하면 1년 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디즈니 역시 11월 12일 OTT서비스 '디즈니+'를 출시한다. 요금은 월 6.99달러(약 8000원)로 책정돼 애플TV+보다 비싸다. 하지만 축적된 콘텐츠 양이 방대하다는 장점이 있다.

애플이 OTT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려면 디즈니와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콘텐츠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약 150억 달러(18조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과 구입을 진행했다. 반면 애플은 관련 투자금액으로 약 60억 달러(7조 원)를 책정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렴한 가격 외에는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디즈니는 7500편 이상의 드라마와 500편 이상의 영화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워즈와 마블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4년까지 전 세계 구독자 820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 떠도는 애플의 '소니픽처스' 인수설이 사실이라면 애플 역시 다수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소니픽처스는 스파이더맨, 베놈과 같은 캐릭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황금사자상 '조커' DC 흑역사 종식시키나

코믹스 원작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조커'가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DC코믹스 캐릭터를 활용한 영화들의 성적이 부진한 가운데 조커가 흑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커는 DC코믹스 배트맨 시리즈의 프리퀼과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다. 조커가 왜 악당이 됐고, 왜 배트맨을 괴롭히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1980년대 초 가상의 대도시 고담은 날로 악화하는 경제상황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다. 아서(호아킨 피닉스)는 용역업체에 속한 파티 광대로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폭력적으로 변한다. 영화는 괴물이 되어가는 조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조커 역할을 맡은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으며 몸무게를 23kg이나 감량했다. 힘없고 여린 사회 부적응자 내면의 증오와 폭력성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을 연기로 설득해낸다. 잭 니콜슨, 히스 레저의 조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조커를 탄생시켰다는 평이다.

다만 영화의 폭력성이 흥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포스트와 ABC뉴스 같은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영화에 묘사된 총기 난사와 정서 불안, 폭력적인 장면들이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경찰 당국은 조커가 개봉한 10월 4일 주요 영화관 입구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며, 일부 극장은 조커 분장을 한 관람객 입장을 불허했다.

